

國 務 總 理

盧 在 鳳

“科學기술의
自 立 自 強 的 發 展 路 線”

제 2 의 跳 躍 이 路 線

親愛하는 全國의 科學技術人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오늘 第24回 科學의 날을 맞아, 韓國科學技術의 요람인 이곳 大德연구단지에서 끊임없는 창조와 혁신을 향한 우리 科學技術界의 의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쌓은 탁월한 연구성과와 훌륭한 업적으로 오늘 大韓民國 科學技術賞 有功褒賞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科學技術人 여러분.

지금 世界 秩序는 급격한 變革의 과정에 있습니다.

前後세계를 東西로 갈라놓았던 理念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으며, 유럽과 北美 등에서는 경제불력을 쌓기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 모든 나라가 과학기술발전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技術保護 障壁을 높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한 나라의 과학기술이 國力을 결정짓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진국일수록 더욱 정부가 앞장서 技術保護主義를 강화하고 첨단기술개발에 진력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政府 역시 그동안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전략을 세우고 집중적인 노력과 투자를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일부 산업현장기술과 첨단기술에서는 우리도 이제 선진국과 겨룰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체적으로는 선진국과 큰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과학기술에 대한 國民認識 제고 통해 ● 科學文化 창달에 역점



둘째, 科學技術 投資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96년까지 GNP의 4%, 2001년까지는 5% 수준으로 과학기술투자를 확대한다는 목표로 政府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과학기술분야의 國際協力活動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기존의 서방 선진국과의 협력을 더욱 내실화하는 한편, 蘇聯 등 東歐圈의 기초과학기술을 우리의 산업기술과 접목하며, 연구기관간의 국제공동연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국민의 健康을 위한 環境保全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맑은 물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水質淨化, 公害低減技術 등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한 과학문화창달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이제 經濟發展의 수단이라는 차원을 넘어 사회 전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모든 국민이 과학기술을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科學技術人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앞에는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과학기술경쟁과 함께 장·단기적으로 극복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제들은 정부와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단합된 노력 그리고 개척자적 창조정신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같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금년도 科學의 날이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靑寫眞을 실현해 나가는 하나의 跳躍臺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전국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첨단기술 개발능력확보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자립만이 우리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천년대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선진 7개국수준으로 진입시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국민적 목표이자 과제입니다.

정부와 과학기술인 여러분이 합심하여 이같은 미래 科學韓國의 목표를 이룩하는데 매진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정부가 앞으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우수 科學技術人力의 양성에 주력할 것입니다.

國民學校에서 大學에 이르는 일관된 科學英才 教育體制를 보강해 나가는 한편, 대학의 理工大와 기업의 社內技術大學을 늘려나가겠습니다.